

문 31: 효력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 31: 효력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디모데후서 1:8-9; 에베소서 1:18-19; 사도행전 2:37, 26:18; 에스겔서 11:19, 36:26-27; 요한복음 6:44-45; 에베소서 2:5; 데살로니가후서 2:13; 빌립보서 2:13

질문 1: 효력있는 부름은 누구의 일인가?

질문 2: 효력있는 부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섯 단계는 무엇인가?

질문 3: 첫 단계인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4: 둘째 단계인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5: 셋째 단계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6: 넷째 단계인 “우리를 권하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7: 다섯째 단계인 “믿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8: 우리에게 요구되는 효력있는 부름의 댓가는 무엇인가?

질문 9: 효력있는 부름에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설명:

이미 효력있는 부르심은 성령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효력있는 부르심은 구속과 관계적인 개념임으로 구속과 관계의 정황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쇼핑 또는 여행을 위해서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효력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력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절대적 또는 전적 부패에 대해 우리는 이미 배운바가 있다. 모든 죄인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전적 부패는 사람이 죄와 죄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부르시는 순간 그 죄인의 죽은 심장이 이미 심어진 믿음의 역할로 인해 되살아나 뛰기시작한다. 효력있는 부르심은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한다. 이것이 사람의 견해로 보는 구원의 과정의 첫 단계인 것이다. 이런 시발점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빛에 조명되는 자신의 죄와 죄성의 흉직함을 보게된다. 하나님의 빛에 조명되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될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5) 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24)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와 죄성을 인정할때 비로써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효력있는 부르심은 죄인이 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시작인가?

효력있는 부르심은 또한 죄인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죄인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의 손이 그를 만졌고 또 그는 근본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비참함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추게 된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숙히 도사리고 있는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킨다. 효력있는 부르심은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의 혁명적인 변화인 것이다. 사람이 변화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때 그에게 깨달음과 기쁨이 오게되는데 그가 마귀의 세계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돌과 같은 심장이 부드러운 심장으로 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변화는 정말 극적이며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될 때 우리의 의지가 변하게 된다. 사람의 의지는 그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된 죄인은 그의 죄와 죄성이 머물렀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는 배의 방향 조절을 할때 사용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변화 받은 죄인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얻게된다. 그리고 그의 삶은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차게된다. 죄인은 마침내 그의 짐을 아주 무겁게 했던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변화된 의지로 무장된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인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 그를 끌어 안을 수 있음을 알게된다. 그러나 그는 그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쉬지 않고 쫓으시고 설득하시기 때문이다.

죄인을 설득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력으로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뤄가시는데 그는 믿음의 씨앗을 이미 우리 마음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흉악한 죄와 죄성 그리고 비참함을 깨닫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게 된다.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된것과 같은 것이다. 그 빛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변하게 되어 그 빛을 향하여 걷게 되는 것이다. 그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그의 빛을 향해 걷게되는데 그것은 그 빛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인데 우주 조차도 그의 빛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비로써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하여 끌어 안게 된다. 예수를 끌어 안는 것이 너무도 기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가 한 때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매우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이제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뜻밖에도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체험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은 죄인이 머물렀던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인 것이다. 어린 아이가 밤의 어두움과 무서움을 피하여 엄마에게 앞만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구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 각자 에게 효력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사셨기 때문에 구속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것이다. 이 선물은 너무도 큰 선물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갚을 수 없다.

효력있는 부르심은 죄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의 부르심이 있을때마다 죄인은 반드시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효력있는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가능할 것이다.

효력있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해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자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을 수 있다. (요 1:12; 뱀전 2:9-10) 우주만물을 지으신 이가 나를 알아보고 부르셨다는 사실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넘치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다윗 왕의 감격스런 표현을 묵상해 보기 바란다. (역대상 17:16-27)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엡 5:8; 15-21) 여기서 우리는 문,답 1 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것은 죄인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거듭남으로)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누리게 되는 것이다. 마치 잃었던 친구를 다시 찾게 된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제속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통해 나의 영에 넘치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혜택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창 12:1-3; 민 6:24-25; 신 28:1-14; 시 128; 잠 10:22; 말 3:10; 눅 24:51; 요 1:16; 행 15:33; 롬 15:29; 갈 3:14; 엡 1:3; 히 6:7, 12:17; 뱀전 3:9)

다섯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칭하여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교회안에서 무엇보다도 영적, 육적, 정신적인 친교를 누리며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것은 이것들이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이며 깊은 관계의 형성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감당해야 한다. (막 2:17; 눅 5:13) 결국, 이런것을 감당 할 수 있을때에 우리는 비로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 할수있다.